

사고, 빈좌 등은 이미 우리의 생활 을 감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운명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행해야 한다.

## 김구슬칼럼



협성대학교 명예교수

### 진실과 거짓의 미로

불신한다. 말이 본질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질을 설명하고 해명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지 만 말을 하는 순간 본질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언어의 이중성이 있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과정은 푸코의 말을 증명하는 과정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말이 길어질수록 본질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진리나 본질은 말이나 글로 전할 수 없다는 불립문자의 의미가 그것이다. T.S. 엘리엇(Eliot)은 일찍이 언어가 본질을 재현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에 천착했다.

그러면 우리 갑시다, 그대와 나, 저녁이 수술대위에 마취된 환자처럼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을 때, 우리 갑시다, 반쯤 인적 드문 거리를 지나, 싸구려 일박 호텔에서의 불안한 밤에 수군거리는 뒷골목과 굴 깎질 흩어져 있는 툭밥 깔린 식당을 지나, 음흉한 의도를 지닌

지루한 논쟁처럼 이어진 거리들을 지나면 결국 압도적인 문제에 이르게 되겠지요.

아, 하지만 “그게 뭐냐”고 묻지는 마세요.

우리 가서 방문합시다.

‘J. 알프레드 프루프록의 사랑노래’ 첫 부분

이 작품은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인 내면화된 자아의 분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너’와 ‘나’라는 객관적 자아와 주관적 자아로 분리되어 어딘가로 떠나자고 제안한다. 양자는 속성 상 끊임없이 대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명징한 의식을 상징하는 낮으로부터 무의식의 밤으로 향하는 저녁에 출발하려 한다는 점에서 여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저녁은 화자의 정신의 환유이다. 마취된 환자에 비유된 저녁이 환기하듯이 화자의 정신 역시 마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길들은 불안한 밤, 수군거림 가득한 불안한 뒷골목이다. 어쩌면 그 길은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끝없는 미로처럼

이어져 있는 길들인 공간적 개념을 ‘음흉한 의도’를 지닌 ‘지루한 논쟁’이라는 추상적 비유로 말하는 시인의 기술이 놀라운 시적 효과를 거둔다.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화자는 ‘압도적인 질문’이라고 말하며 그게 무엇인지는 묻지도 말라고 한다. 아마도 그것은 화자가 직시하기를 두려워하는 진실이거나 대면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일 것이다. 인간은 진실을 마주하거나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법이어서 가능한 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를 회피하려 한다.

지루한 변명이나 해명은 본질을 벗어난 알맹이 없는 말잔치일 뿐 그러한 논쟁으로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작품 결미에서 화자는 백일몽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다.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진실과 만날 수 없다.

최근 혜경궁 김씨의 공허한 논쟁 역시 길어질수록 본질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엘리엇의 화자처럼 분연히 깨어날 때 비로소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건 국민 모두 소모적인 말의 미로에서 벗어나 진실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만 젊은 여성들에게 월세 10~12만 원을 받고 빌려주고 있다. 1988년 지어진 경로당 2층은 노후화에 따라 비가 새고 냉난방도 안 돼 경

해선 안 된다. 그래야 지금의 단순한 주거를 넘어 취미와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형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 한국민에게도 기쁨 준 박항서 감독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쁨을 선사했다. 물론 베트남 국민들만큼은 아니겠지만 모처럼 근심을 잊게 한 시간이었다. 15일(한국 시간)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2018 AFF 스푼지컵 결승 2차전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말레이시아를 1-0으로 누르고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베트남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을 넘어 8강, 4강까지 진출했을 때의 분위기와 흡사하다. 우리도 그때 엄청난 환희를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국민들의 기쁨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그 환희의 중심에 박항서 감독이 있다. 박감독이 지난해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만 해도 베트남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박감독은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축구선수권대회 결승 진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이라는 성적을 내면서 베트남의 영웅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제의 인물이 됐다. 이번에 스푼지컵에서 우승함으로써 그의 인기는 하늘까지 치솟았다. 그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 아니었음은 그동안의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베트남의 언론 봉다는 “베트남이 이번 대회 8경기를 8개팀으로 치렀다”고 칭찬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나 하면 경기 때마다 다른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다른 선수들을 출전시켰다는 것이다. 스포츠 전문 매체 OSEN은 “박 감독은 상대팀 맞춤 전술을 가 동했다. 3-4-3을 기본 포메이션으로 하지만 8경기에서 모두 다른 모습으로 상대를 당황 시켰다. 또 경기마다 다른 선발 명단을 들고 나왔고 결정적일 때 교체카드로 분위기를 바꿨다”면서 단순히 운이 좋았던 우승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박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열린 공식기자 회견에서 모든 베트남 국민들과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말은 “저를 사랑해주시는 만큼, 내 조국 대한민국도 사랑해 달라”는 것이었다. 미안한 얘기지만 외교 관 1천명이 베트남에 파견된 들 박 감독만한 외교적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박 감독의 언행은 우리에게도 감동을 줬다. 그래서 이번 결승 2차전을 SBS가 생중계한 것이고 합산 21.9%라는 기록적인 시청률이 나타난 것이다. 베트남 경기장과 거리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한 국민들이 많았으리라. 한국-베트남 국민들을 모두 감동시킨 박항서 감독은 영웅이다.